

##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조사 확대개편(정밀조사→ 건설사고조사위원회)

- 조사는 당초 계획대로 7월 1일 완료 예정, 위원장에 홍건호 교수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안단에 아파트 신축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(인명피해 없음)와 관련하여 5월 2일부터 국토안전관리원 주관으로 정밀조사를 시행 중이나,
  - 보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유사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8조에 따른 “건설사고조사위원회”로 확대 구성한다고 밝혔다.
- 위원회는 호서대 홍건호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·업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이미 조사된 내용을 인계받아 당초 계획대로 7월 1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.
  - 기존 정밀조사에 참여하였던 전문가 3인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, 정확한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위원장 외 건축시공 5명, 건축구조 5명, 법률 1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2명으로 편성하였다.
  - 위원회는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및 설계·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.
- 국토부는 “조사가 완료되면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	책임자	과 장	이윤우 (044-201-3573)
		담당자	사무관	안일찬 (044-201-3552) 장연환 (044-201-3562)